광양시, 39인승 대형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버스 지원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들 복지관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도움"

광양시는 2일 중마권역 장애인들의 이동권 불편 해소와 원활한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등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버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에서 중마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버스'는 39인승 대형버스로 휠체어 리프트 기능을 장착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그동안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중형승합차량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운행해 왔으나, 차량이 작아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중마권역 장애인들의 복지관 이용 접근성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이동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지원하게 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복지관 이용자는 "그동안 버스가 없어 복지관의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참여를 못했다"며 "이제는 버스를 이용하여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차량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복지관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시는 8천여 명의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모두가 차별없이 함께 누리는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고흥군, 마을이장 515명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 앞장
마을이장 대상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서비스 연계 교육

고흥군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한 읍 · 면별 순회교육에 본격 나선다.

'생명지킴이'는 자살 위험에 처한 대상자의 신호를 파악하고 전문기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위급상황에서는 자살 위험군의 자살시도를 예방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 보건소는 3월 3일 영남면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마을 사정에 밝은 마을이장 515명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생명지킴이 소개 ▲우울증의 증상 및 자살예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 ▲생명지킴이의 역할 및 알아야 할 정보 ▲치료기관 연계 방법 등이며, 전문 교육을 받은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교육 강사로 나선다.

군은 이번 교육으로 마을이장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해 생명사랑 로고송 마을방송 송출, 자살예방 홍보 등을 통해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상에서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발굴해 맞춤형 치료서비스 등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보건소는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뿐만 아니라 우울증 선별검사,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신건강 상담이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신청은 고흥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061-830-6673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순천시, 그린 스마트시티 첨단 기술로 시민·관광객이 편리한 도시 만든다
스마트도시계획 국토부 승인 및 운영 조례 제정 완료

순천시는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그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스마트도시 제도 정비와 정보통신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2021년 스마트도시계획 국토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쳤다. 스마트 도시계획에서는 순천시 현황,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5개년간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정립과 도시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도 마련하였다.

올해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역세권 일원에 주요 스마트 서비스 6종을 구축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스마트서비스는 관람객의 예상 동선을 분석하여 순천역에서부터 동천전망대, 박람회장까지 이동 동선 곳곳에서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여 편리하고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람객들은 순천역 관광안내소에서 디오라마·AR 체험, 전자칠판 등 첨단 스마트관광시설물을 통해 관광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동천테라스까지 가는 안심거리에서는 스마트폴의 가로등, CCTV, 비상벨, 스피커, 와이파이(Wi-Fi), 시정안내 키오스크와 로고젝터를 활용한 웹툰 콘텐츠 등 7종의 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동천테라스에서는 타임캡슐 기능의 소망나무를 만나 소망 메시지와 기념사진을 담아 나중에 열어볼 수 있고, 동천 뱃길을 따라 정원드림호를 타고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입장하여 국제습지센터와 실내정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만날 수 있어 순천여행에서의 볼거리, 체험거리, 추억 쌓기까지 즐겁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순천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청사진과 순천형 스마트도시계획의 체계적 추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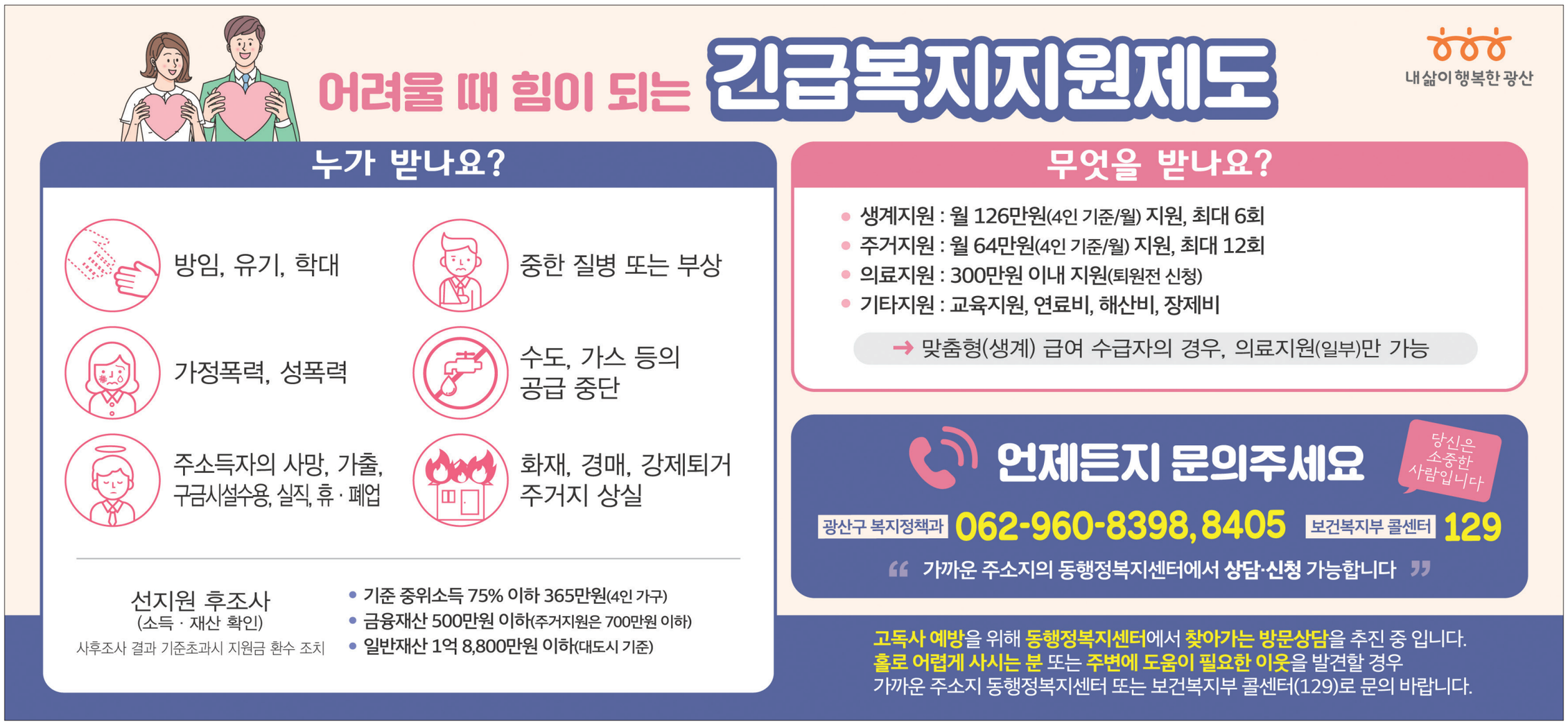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출범
시청 상황실 심의회 개최…시의원·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구성

여수시가 첫 번째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선제적 공공갈등 예방?해결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종기 부시장을 비롯해 위원 11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갈등조정전문가·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여수=김현근 기자